

투데이 칼럼

주한미군 방공체계 패트리엇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일부를 증동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패트리엇이 빠지면 조밀한 영공 방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군은 연합 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선 이례적인 움직임이 감지됐다.

미 본토에서 날아온 C-17A 등 대형 수송기 수십 여 대가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무인기를 싣고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레인의 이사(Isa) 공군기지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였다.

이 화물의 정체는 얼마 안 돼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반출한 패트리엇은, 경기도 평택과 오산, 수원 등 주요 기지에 배치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미8군 제35방공포병여단 예하에 패트리엇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말대로라면 주한미군 패트리엇 절반가량이



정복규

논설위원

빠져나간 셈이다.

통상 주한미군이 해외로 차출되는 경우 보완전력을 배치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게 관례인데, 이번 경우엔 대체 전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방어 전력, 패트리엇 시스템 같은 경우엔 한국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 천궁-II보다 한 단계 더 위등급에 있는 고성능 요격 무기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한 이유는, 10년 만에 재개된 이란과의 협상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중동 해역에 6개 항모 집단을 집결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직접 폭격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란

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사시 이란의 반격에 대비해 패트리엇을 중동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데, 한반도 안보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이뤄진 첫 조치란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주일미군에 F-35A 48대 등 최신 전력을 대거 증강하는 반면, 주한미군의 전술기 4분의 1가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움직임도 심심치 않게 감지되고 있다.

7월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가 있다. 스트라이커 여단의 교체도 예정돼 있다.

일단은 교체 부대가 지정돼 있긴 하지만 협상 추이에 따라서 후속 교체 부대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지난 3월에 약 9만 명 정도의 육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상군을 감축하게 될 경우에 주한미군 병력이 최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면밀히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러면 우리 군은 패트리엇 이동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군의 순환 배치는 3개월 이내 마무리됐다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작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중국 견제나 타이완 방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해선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미 국방장관의 내부 지침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축소했다.

한미 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계속 상황을 방치하다 보면 안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설

새만금 신항 통합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을 놓고 전북 도내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맞선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은 결국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군산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합 운영이 항만 경쟁력 확보에 더 낫다고 해수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명칭은 '새만금항'으로 정해졌다. 새만금의 관문인 신항의 운영방식은 결국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으로 결정됐다.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서 통합 운영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기존 군산항이었던 국가관리 무역항의 명칭은 새만금항으로 바뀌고 새만금항의 하위 항만으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함께 관리된다.

각 지자체의 주장과 낮은 군

산항의 물동량, 항만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두 항만이 함께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위원들은 판단했다.

군산항 물동량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 있어서 기능적인 재배치를 원활히 이뤄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해수부는 새만금항을 항만법 시행령에 담고 항만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게 돼 내년 우선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후속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군산시는 해수부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통합 운영으로 군산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제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신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앞으로 새만금항을 김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광역거점 항만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군산항과 신항을 갖춘 새만금항이 향후 경쟁력을 갖춰 환경해권 불류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댐 온실가스대량 배출

댐과 그로 인해 생겨난 저수지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댐 저수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변화 때문에 댐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댐 온실가스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녹조 제거선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긴 띠가 생겨날 정도로 안동호에 짙은 녹조가 졌다.

녹조는 독성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인 메탄도 내뿜는다. 댐 건설 과정에서 물속에 잠기는 식물도 분해되며 메탄을 배출한다. 전 세계 저수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4%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만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그래서 2019년부터 정밀한 댐 저수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

했다. 세계 최초로 미국이 이 기준에 따라 댐 저수지의 2021년 배출량을 산정해 봤더니 약 2천890만 톤이었다. 한국은 아직 이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적용할 경우 보령호, 탐정호 등 총난 6개 호수의 연간 메탄 배출량이 8,800톤, 이산화탄소 환산 약 25만톤이란 연구가 있었다.

댐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고정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댐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계획에는 온실가스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다.

댐의 숫자를 더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게 되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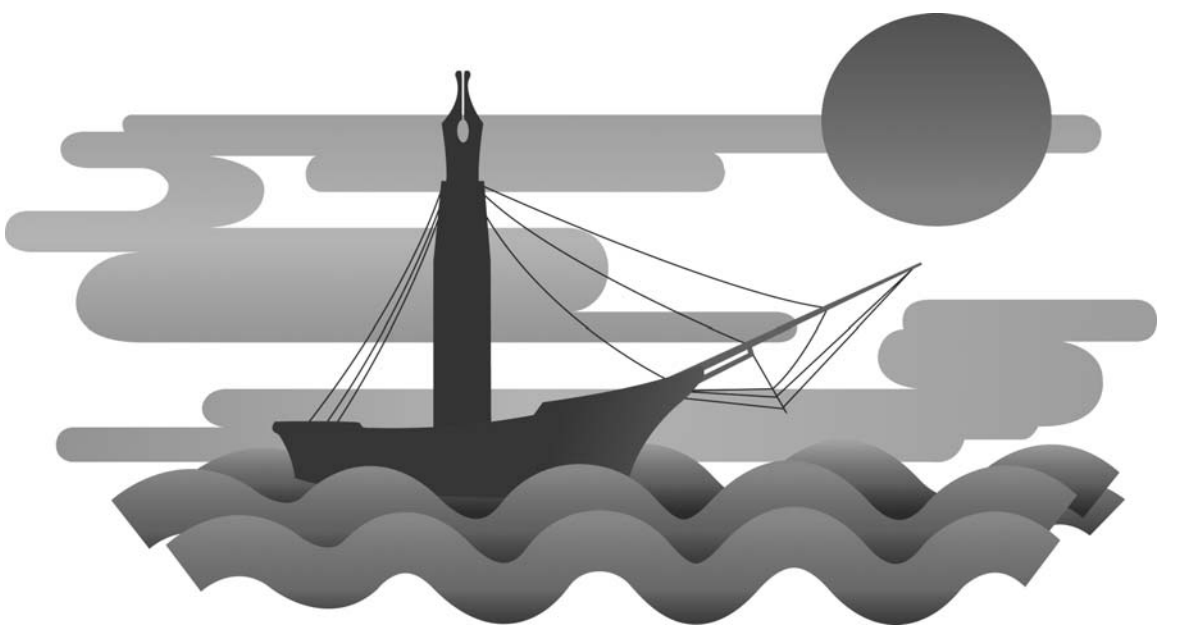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나크바의 날'을 맞아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도중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크바의 날(재앙의 날)'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직후, 팔레스타인인 약 7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난 비극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5월 15일을 '나크바의 날'로 정해 해마다 이를 기억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스위스 비젤에서 열린 제69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차 준결승에서 리트비아 그룹 '타우투메이타스'가 부르민 리아미(내게 행운을 줘)를 선보이고 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유럽 최대의 팝 음악 축제로, 국가 대항 형식의 노래 경연대회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